

도내 총선 '一與多野' 구도 대진표 확정

정책선거 대신 후보 구성 급급 '역대 최악 평가'

국회의원 숫자가 1석 줄어든 도내 10개 선거구에 대한 여야의 공천이 국민의당 전주율과 안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후보자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후보등록일(24~25일)이 코앞에 다가와 서야 일부 선거구의 공천이 마무리되더니 이번 총선은 정책선거 대신 후보 구성에 급급한 '역대 최악의 선거'란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을 위한 공천 결정 과정을 분석해본다.

▲현역 물갈이, 민심 변화 뚜렷
여야의 전복지역 후보 공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현역 심판론이었다. 더민주의 도내 19대 초선의원 7명 중 생존자는 김성주·김윤덕 의원 단 2명에 불과했다. 컷오프는 불명예를 안은 최규성 의원은 불출마, 강동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며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복을 갈아입었지만 조배숙 전 의원에게 불리한 석패를 당했다.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김관영·유성엽·전정희 의원을 제외하면 더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 낙한 현역은 이상직·박민수의원이다. 각종 기득권과 프리미엄과 조직력을 안고서도 현역이 탈락한 이들 지역은 극심한 혼란세를 보이며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지 알 수 없는 격전지로 돌변하고 있다.

▲야당 자민심?...경선 후유증 커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최근 한 달여 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잇따르는 집음을 노 출하면서 각 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더민주의 경우 익산시 갑선거구 경 선 탈락한 후보를 을선거구로 전략공천하 면서 예비후보들과 지역장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 예비후보로는 국민 의당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승리가 불투 명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 같은 전략공 천이 지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주율과 안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경 선 과정에서도 후보 간 극한 대립양상이 빚어졌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남원임실순 창 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 서 신인 가산점 적용을 두고 후폭풍이 일 고 있다. 일부 후보가 경력을 숨기거나 누락시켜 가산점을 받아 공천장을 받았던 상대 후보들이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김제부안 선거구에서는 경 선후보 배수압축을 놓고 공천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경선 후유증이 이 어지고 있다.

▲-여야 구도
국민의당 출현으로 1당 독점 구조 균열 과 함께 더 이상 더민주당 공천장은 당선 이 아니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민심 이

<정당별 공천 현황>

지역구/정당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전주 갑	전희재	김윤덕	김광수	
전주 을	정운천	최형재	장세환	
전주 병	김성진	김성주	정동영	
익산 갑	김영일	이춘석	이한수	전권희
익산 을	박종길	한병도	조배숙	권태홍
군산	채용목	김윤태	김관영	조준호
정읍고창	김성균	하정열	유성엽	
남원순창임실	김용호	박희승	이용호	
김제부안	김호성	김춘진	김중희	강상구
원주진무장	신재봉	안호영	임정엽	
익산시장	최행식	김필문	정현울	

반과 국민의당과의 야권분열을 틈타 새누 리당 후보들의 반격도 흥미로운 관전 포 인트다.

전주 완산율의 경우 이상직 의원을 물리 치고 본선에 진출한 최형재 예비후보 지 지세와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지지세가 충돌할 경우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기반 이 분산돼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 지리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 예비후보(전주 완 산율)와 가족들은 인물론을 강조하며 지 역 부동층을 공략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익산율에 대한 '돌러막기' 공천으로 지역장가와 시민사회단체가 거 세게 반발하고 있어 새누리당 박종길 후 보가 전도지쟁을 얻을 수 있을지도 주목 된다.

/고민형기자

4.13 선거 RUN·RUN·RUN

이춘석 예비후보, "디자인벤처 창업스쿨 원대 유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예비 후보(익산갑)는 충청과 호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디자인벤처 창업스쿨'의 원 광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원광대의 적극적인 협력도 주문했다. 원도심과 대학로 인근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경제 살리 기에 대학이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원광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상상발 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김관영 예비후보, 교육·복지분야 공약 발표

국민의당 김관영 예비후보(군산)가 22 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전북대병원 조기 마무리,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노인종합복지관 설 립 등 공약을 발표했다.

김후보의 대표 공약은 교육·복지 분 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군산', '시 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군산', '어르신과 농어민이 살기 좋은 군산' 등이다.

교육·보육공약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마더박 스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 력 국가 지원 ▷난임가구 지원 확대 ▷보육 및 유아교육 국 가원전책임제 이행(누리과정 국고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아간 어린이집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 이 테마파크 조성 ▷동부권 시립도서관 건립 ▷어린이 수영 의무교육 ▷청소년 '희망키움' 지원센터 건립 ▷군산교육발 전진흥재단 자금 규모 및 사업영역 확대 ▷교육부 특별교부 금 확보 통한 공교육 인프라 강화 ▷교육을 병행방 전기요 금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약으로 ▷군산 전북대 병원 조기 마무리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건강 마일리지 제 도입 ▷서부권 수영장 등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북합 화력발전소 뒤 친수공간 조성 ▷월명 체육관 내 탁구전용경 기장 설치 ▷공공 미디어 문화관 설립 ▷재해 없는 군산 조 성(수리시설 및 배수개선 강화)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 ▷범좌안전을 위한 설계(셉티드CPTED) 프로그램 확대 ▷개성문화마을 교차로 개선 등 제시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군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에 역집 을 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겠다"고 자 신했다.



/군산=문정근기자

더민주 한병도 익산을 전략공천 강력 반발

예비후보·시민단체 "경선 탈락자 공천은 폭거"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전 의원을 제20 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한 것과 관련해 지역장가와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김영희·김지수 예비후보는 2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병도 경선탈락자 전략공천을 불러온 더민주를 사칭한 기득권에 항거한다"며 성 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예비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도 주지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전략공천을 선포하는 것은 시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선탈락자 전략공천의 폭거는 역사책에 기록돼 대대 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전 의원의 전략공천에 동조한 11명의 전·현직 시·도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선필패의 책임을 분명히 저

야 할 것"이라며 "경선탈락자는 자신 스스 로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요구했 다.

익산지역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 공공성교육강화 익산연대는 이날 더불 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천을 비난하는 기 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더민주의 익산을 선 거구 경선 없는 컷오프와 경선탈락 후보 의 전략공천으로 익산시민은 감당하기 어 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두언, 지도부·공관위 맹비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2일 유승민 의 원을 물러산 공천 갈등에 대해 "지도부와 공관위 인사들은 총선에 패배한다면 1차 적 책임을 집과 동시에 역사에는 비루한 간신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향해 진행 해온 소위 '공천화살'에 책임이 있는 새누 리당 지도부와 공관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여권 내 권력을 강화하려 다 권력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라 며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자해행위"라고 혹평했다.

/이성주기자

김광수 예비후보, 체험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 추진

국민의당 김광수 예비후보(전주시 갑, 사진)는 22일 '역사유적 탐방로 조성'을 통한 체험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는 동·서하를 중심으로 후백제의 문화유적과 전라 갑영 및 오목대, 이목대 등 조선전국 초기 역사유적이 다수 산재하고 있 는 곳"이라며 "이런 역사문화유적들 을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복원해 단순 관광이 아닌 체험 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서 문화중심도시로의 위상과 자긍 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특히 전주에는 조선의 마지막 환 손이 계시기에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현대에 맞게 각색해 가족체험형 관광 또는 수학여행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체험형 관광 상품'은 학생들 에게 역사적 고취와 글쓰기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수기자

김윤덕 예비후보, 인후 3동 지역현안 해결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 (전주시갑, 사진)는 22일 인후 3동 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센터 신축,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노 인복지회 분관 건립,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평생학습센 터 내 일부 공간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인후3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매우 협소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뿐 아니라 열악한 환 경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후3동 주민 센터 신축사업(약 50억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빛꽃 테라스, 생태산책로, 분수광장, 야생 화 정원 등 소품과 나눔, 휴식공간이 담긴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약 50억원), 노인복지관 이용인원 급증과 규모 협소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노인 복지회 분관 건립, 진로직업체험실, 상담실, 북카페 등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약 65억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최형재 예비후보, "노인빈곤층 문제 국가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전 주시, 사진)는 22일 전주시 효자동 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어르신들 에게 중식 봉사활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참석 할때마다 가슴 먹먹함과 동시에 고 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후보 가 된 지금은 무한한 책임감이 생 긴다"고 소회를 밝히고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는것과 불우자방치법을 공약으로 정했다"며 이 를 반드시 실현시키길 것을 약속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노인빈곤층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야한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총선에서 새누리를 이겨 민생경제를 살 리고 정권교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며 표로서 심판 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영수기자



/정영수기자

하정열 예비후보, "정읍·고창 명품도시 만들겠다"

제20대 총선 전북 정읍·고창선거구 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예비 후보는 정읍·고창의 일자리 창출과 고 창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민생과 국방안보공약에 이 어 두 번째 발표되는 이번 공약은 정읍 과 고창이 함께 상상 발전할 수 있는 공약과 고창군민을 위한 지역공약으로 나뉜다.

하 후보는 먼저 상상하는 최고의 명품도시 정읍과 고창 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고창 정읍의 북분지와 4메리 특 화육성사업 지원 ▲정읍 고창 통합 문화예술사업 확대를 위 한 복합문화통합센터 건립 ▲정읍 고창 6차 산업 활성화 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정읍 고창 선도·성공사업 공 유 시스템 구축 ▲다문화 가정 일자리와 아이들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공약들은 그간 정읍시와 고창군이 각기 추진한 성공적 인 사업을 중심으로 공유하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창군민을 위한 공약으로는 '명품도시 고창의 꿈을 하정 열이 이루겠다'는 각오와 함께 '한빛발전의 문제점을 해결 하여 '보다 더 안전한 명품도시 고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대안으로 ▲비파라 폐사 원인 규명과 보상 추진, 상시적으로 운영될 ▲한빛발전 민간발전·감사센터 설치를 제시했으 나다.

이와 함께 고창의 천혜자연자원을 활용한 '더 큰 문화관광 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고창 모양성제 전역 화 ▲해안선 농업지구내 상가의 상업지구 전환을 위한 용역 실시 ▲명사십리 리조트 개발 및 명사십리 군용도로 확보장 ▲운곡습지 관광 및 자연휴식 최소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 등을 밝혔다.

또한 고창군민이 바라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밝히 며, ▲고창군청 제2정사 신축 ▲연안비대 목장화 사업 ▲고 창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창대교 건설 ▲고창군 연안관리구역 제조업(현재 고창앞 바다 부안군 관리구역) ▲전북대 고창캠퍼스 학과 증설(조정 또는 축산 관련) ▲고 창 재래식(자주식) 김 명품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이석권 예비후보, 진정한 정의는 시민으로부터

익산을 이석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하 이 후보)는 "시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익산이 변하고 이제는 시 민이 일어나 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염치를 모르면서 정의 를 말하는 정당정치로 더 이상 국민 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깨 끓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후보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한 다면 국민은 어차피 반복되는 혼탁한 정치를 의면할 수밖 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권력을 위해 일신의 성공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며 "이제는 시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익 산이 변하고 권력 앞에 염치 없이 정의는 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시민이 일어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박종길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위원 임명장 수여

새누리당 박종길 익산지역 국회 의원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2시경 익산시 여안동 650-4 번지 소재한 선거사무소에서 3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를 대표하는 박종길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각 직능대표들은 선 거의 성공을 위해 선거운동의 핵심 을 담당하게 된 분들에게 책임과 단합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임명장 수여식을 통한 필승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사회위기라며 이번선거를 통해 대한 민국과 익산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기업을 토했다. 또한 "저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뛰어 주시는 분들에게 연제 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며 보답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임명장을 받은 분들에게 감 사의 말도 함께 전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장양원 기자

강동원 예비후보, "내가 유일한 민주적통 후보자"

무소속 강동원 예비후보(임실·순 창·남원, 사진)는 22일 해당 지역구 곳곳을 순방하며 자신이 '유일한 민 주적통 후보자임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임·순·남 지역발전이 도약하는데 이번엔 퇴보 한느냐를 가름하는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밀실공천으로 지 역기반도, 이렇듯, 일괄도 제대로 모르는 신출내기 정치인 인에게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 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굵직 한 지역현안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해 낸 확실한 추진력, '검증된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적임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강 예비후보는 "당지도부의 밀실 공천에 희생되었지만 유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압도적으 로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정영수기자